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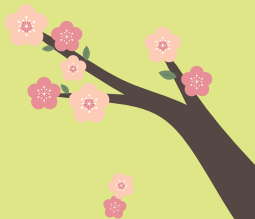
2026

가족과 함께 드리는

#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New Year Worship



#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 묵상기도 ..... 다 같이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찬송가 28장) .....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 기 도 ..... 가족 중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간구하오니,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말씀이 풍성한 가정', '기도의 무릎이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봉독 ..... 골로새서 3:15~17 (구신약 327페이지) ..... 인도자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말 씬 .....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가정 ..... 인도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설날은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며 눈에 보이는 복을 기원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운동 경기의 심판관이 되어 판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상하여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존심이나 고집이 심판관이 되게 해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사이의 심판관이 되어, 다툼을 멈추고 화평을 선택하도록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도록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의 대화와 생각 속에 세상의 뉴스나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서로를 권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이 있는 가정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17절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일, 대화하는 일, 집안일을 하는 사소한 일상조차도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처럼 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절의 분주한 가사 노동이나 가족 간의 대화가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도 그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없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통일찬송가 305장)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 **다 같이**